

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보도자료	보고서명	자본시장 심리지수 시리즈 1: 자본시장 심리지수의 구축과 활용
	문의	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(02-3771-0629, nohs@kcmi.re.kr)

-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본시장의 심리적인 동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유용성 증가
 -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, 금리·환율 변동성 확대,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자본시장 불확실성 심화
 - 정량적 지표만으로는 시장 참여자의 기대·불안·공포 등 심리 요인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 존재
 - 뉴스 등 비정형 텍스트 정보를 활용한 고빈도 심리지표의 필요성 증대

- 본 연구는 국내 증권 뉴스를 학습한 대형언어모형을 활용하여 자본시장 심리를 정량화한 자본시장 심리지수(Capital Market Sentiment Index: CMSI)를 구축하고 활용 가능성을 분석
 - 주식시장 관련 뉴스에 포함된 문장을 시장 환경에 대한 관점에서 긍정·부정의 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시장 참여자의 기대를 수치화
 - 일별 평균 심리지수와 분산 심리지수의 이중 구조를 통해 시장 심리의 평균적인 수준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측정하여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에 대한 다층적이 정보를 제공

- 대형언어모형에 기반한 지수의 구축 방식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입력 정보를 기반으로 설명가능성을 강화
 -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AI 기반 지표의 구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신뢰도 및 활용 가능성 제고
 - 대형언어모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지표의 산출 근거를 알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단어(형태소)별 기여도 분석을 통해 설명가능성을 강화
 - 동일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상반된 기여도를 가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

- 자본시장 심리지수의 시계열적인 특성으로는 단기적인 지속성과 평균 및 분산 지표의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음
 - 평균 심리지수는 단기적으로 1주 내외의 지속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분산 심리지수는 평균 지수보다 더 긴 지속성을 보임
 - 평균 심리지수와 분산 심리지수는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동시에 평균적인 시장 심리가 중립에 가까울수록 의견의 불확실성이 높은 비선형적 관계 확인

- 국내 자본시장 환경 분석에 특화된 AI 기반 지표로서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높여 정책 및 투자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실증적 도구로서 효용
 - 국내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대형언어모형을 활용한 체계적 심리지수 구축 사례 제시하고 AI에 기반하여 산출된 지표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보완하여 활용성을 제고
 - 자본시장 정책 및 투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실증적 도구를 제공

- 자본시장 심리지수는 정책 및 투자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정량적 지표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시장의 정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
 - 시장 참여자의 심리적인 동인을 고빈도로 측정하여 전통적인 금융 지표 대비 적시성이 높음
 - 두 편의 시리즈 보고서 『거시·금융변수와의 관계와 유용성』(장보성 저), 『투자자 심리와 주식시장의 관계 고찰』(김민기 저)를 통해 자본시장 심리지수가 주식시장의 정보 효율성과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을 확인
 - 본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수를 고도화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정보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